

쿠빌라이 세첸 카안  
忽必烈 薛禪可汗 (1215~1294)



대원 세조 쿠빌라이 영정 (17세기 작)

제 1 대 대원황제 (재위 : 1271.12.18. ~ 1294.02.18.)

대관식 : 1271.12.18. (至元 8年)

묘호 : 세조 (世祖)      재상 : 아흐메드

후임 : 테무르 울제이투 카안 (成宗 1265~1307 재위 : 1294~1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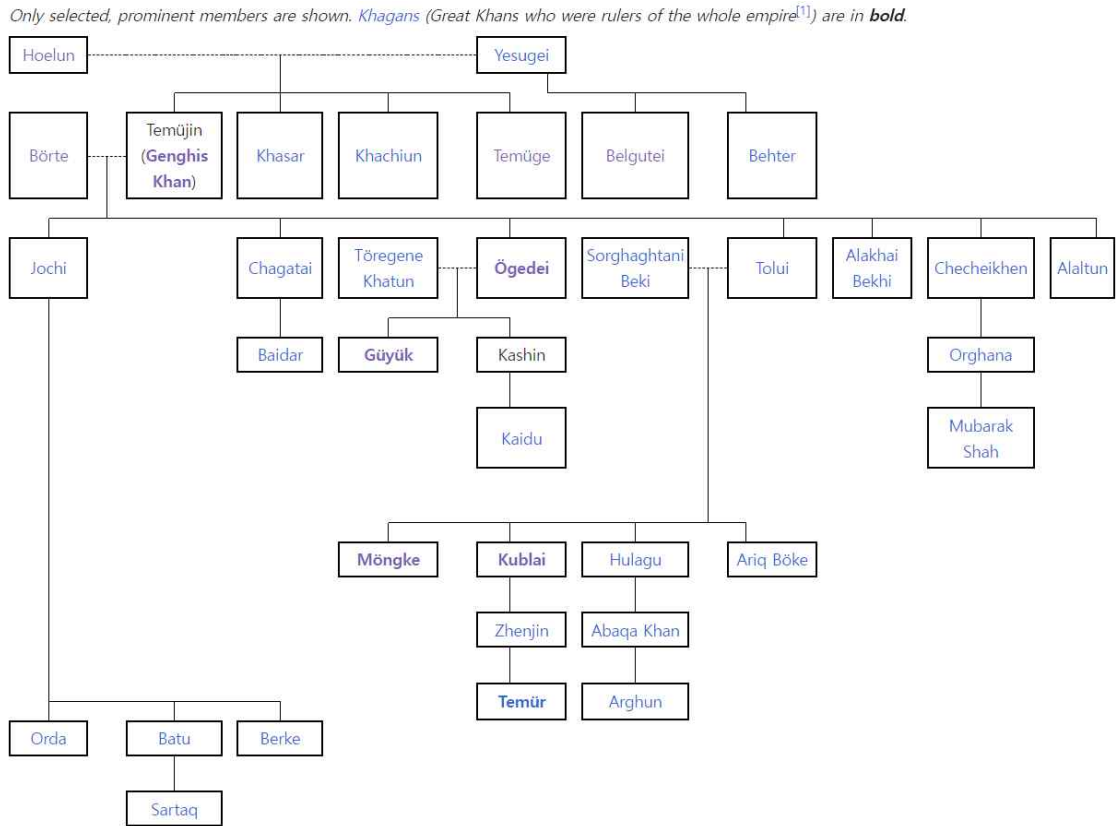
제5대 몽골 대칸

재위 1260.05.05. ~ 1271.12.18.

대관식 중통(中統) 원년 3월 24일 (1260년 5월 5일)

쿠빌라이는 어질고 현명하며 낙천적인 인물이었으며 키가 크고 체격이 컸

다고 알려져 있다. 칭기스칸의 친손자로 부친은 툴루이 (1192~1232)이고 모친은 소르카타니 베키 (1190~1252)이다.



1252~1254: 대리국(大理國, 현재 운남성) 정벌. 대리총관으로 段氏를 임명함.

1256~1257: 제1차 베트남 원정

1257: 몽케 칸의 세무조사

1258~1259: 남송(南宋) 정벌

1259: 몽케 (1209~1259 재위: 1251~1259) 사망

1260.04.15.: 카이핑(開平)에서 개최된 쿠릴타이에서 대칸으로 선출됨

1260: 고려 태자 왕전(王儼: 후에 고려 제24대 元宗)을 만남

(高麗萬里之國, 自唐太宗親征而不能服, 今其世子, 自來歸我, 此天意也.)

제25대 고려 충렬왕 (1236~1308 재위: 1274~1308)이 그의 딸 제국대장공주와 혼인하였고, 이후 고려의 역대 군주들은 원나라의 공주 혹은 종실의 딸과 결혼하여, 원나라의 부마국인 동시에 외손이 됨

1260~1264: 아릭 부케 (1219~1266 재위: 1260~1264)와 패권 다툼

아릭 부케는 제5대 몽골 칸이며 쿠빌라이 동생의 친동생



- 1260 : 지폐 중통원보교초(中統元寶交抄)의 발행을 명하고, 지폐를 시중에 대량 발행. 화폐의 단위는 문(文)과 관(寬)이었으며, 지폐의 재질은 뽕나무의 속껍질을 재료로 사용했다. 동시에 금과 은, 동을 상당수 정부에서 독점화하고 유통은 지폐를 통해 사용하게 했다. 중통원보교초는 보통 A4 용지 크기였으나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 33cm가 넘는 것도 있었으며, 지폐는 원나라 외에도 몽골 4개 칸국(汗國)과 원나라의 속국인 고려, 베트남 등에도 통용시켰다. 쿠빌라이는 친히 칙령을 내려, 중통원보교초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게 함.
- 1263~1265 : 태묘 건립. 유교적 제사 수용. 친중국화 정책 시행
- 1264 : 사할린 공략
- 1268 : 제1차 남송 원정

- 1271: 대원 제국 선포
- 1274: 제1차 일본 원정 실패
- 1276: 임안(臨安) 무혈 함락
- 1277: 미얀마, 캄보디아 (속국이 됨), 자바 원정
- 1278: 제2차 남송 원정
- 1279: 남송 멸망
- 1281: 제2차 일본 원정 실패
- 1283: 태국, 크메르 제국 침공
- 1284: 제2차 베트남 원정
- 1286: 황태자 친킴(眞金, 1243~1286) 사망
- 1287: 몽골 동부지역의 영주 카단의 반란 진압
- 1288: 나얀 처형
- 1288: 제3차 베트남 원정 실패
- 1294: 태국의 수코타이 왕국과 치앙마이 왕국이 속국이 됨

쿠빌라이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 [1] 행정구역 개편

쿠빌라이는 중국 화북지역과 대도, 중도, 상도, 카라코룸 및 주변지역은 중서성이 직접 관할하게 하고, 각 지방은 몽골 황족의 울루스와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통치하였다. 1264년 쿠빌라이 칸은 총제원(總制院)을 설치하고 그 책임자인 원사(院使)의 관질은 정2품으로 임명했으며 산하 관제를 편성하고, 선정원에 딸린 군대도 편성하여 선위사사도원수부(宣慰使司都元帥府)라 하였다. 뒤이어 총제원은 선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불교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토번 지역의 군정 사무를 담당했다. 또한 사천성 서쪽, 운남성 서북쪽은 직할령으로 두고, 티베트지역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대신 선정원이 티베트 지역의 행정, 군사 문제에도 관여하게 했다.

### [2] 지방관 파견과 서역 학자 초빙

쿠빌라이 칸은 중국의 각 지역에 자사, 총독, 부총독을 직접 임명, 파견하여 통할하게 했고, 한인(漢人)의 세습적 봉건 제후제를 폐지하고 몽골의 제부족장 칸의 권한을 축소시켰으며, 파견된 지방관으로부터 직접 혹은 태자 친킴, 시중 등을 통해 정무를 보고받고 처리하는 등 중앙 집권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당나라와 금나라의 법률 제도를 참고하게 하여 법률 정비를 상시 추진하

였다. 또한 세제를 정비하였고, 무슬림 출신 아흐메드에게 재무성을 맡겨 조세를 관장하게 했다. 우구데이 시대의 역참을 좀더 조밀하게 하고, 봉화와 파발, 역참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무슬림 학자, 상인들을 초빙하여 관료로 임명하여 중국지역을 다스리게 하여 남송과 한인 세력을 견제하였고, 몽골에는 한인 관료들을 자사와 총독, 부총독으로 파견하여 몽골 귀족들을 견제하였다.

쿠빌라이는 중근동의 학자와 과학자들을 초빙, 후원하였으며 아라비아 출신 천문학자들은 산시성 천문대 건설에 참여하였다. 천문학자 자말 아드 딘 부카리(Jamal ad-Din Bukhari)는 새로운 천문장치 설치와 중국 달력의 보정을 허용 개념을 소개하였다. 또한 아라비아 출신 지도제작자들을 고용, 지도를 제작하게 하여 육로와 해로를 정확하게 기술하게 하였다. 이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모든 주변 인접 지역의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다. 또한 아라비아의 수학자들을 통해 중국에서 유클리드 기하학, 구면 삼각법 및 아라비아 숫자를 소개, 이를 배우게 했다.

### [3] 파스파 문자 제정과 사전 편찬

파스파 문자(Phags-pa characters, 八思巴文字)는 1265년 대원(大元) 국사(國師)인 파스파가 쿠빌라이의 명을 받아 몽골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든 문자로서, 몽골신자·방형몽골문자라고도 하는데, 파스파의 백부(伯父) 사펜이 처음 고안한 것을 파스파가 개량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파스파 문자는 몇 년의 연구 끝에 1270년 제정되었다. 1282년에는 칭기즈 칸 사망 60주년을 기념하여, 학자들에게 명하여 몽골어 백과 사전 바르탄도르지 수무바타르를 편찬했다. 원사(元史)에 의하면 바르탄도르지 수무바타르는 총 12권이었던 한다.

### [4] 종교와 신앙의 자유 허용

쿠빌라이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또한 불교 경전, 기독교의 신구약과 율법, 이슬람의 꾸란, 도교의 노장사상, 형이상학에 관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자유로운 담론, 논쟁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누구나 원하면 자유롭게 개종할 수 있도록 했다. 쿠빌라이 자신은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 [5] 자유무역과 해상무역 장려

이란계 Muslim의 상업세력과 연대를 맺고 유능한 페르시아계 Muslim들을 경제 재정 관료로 임명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였다. 쿠빌라이 시대에는 체계적인 역참(yam)제도(오늘날의 인터넷)가 수립되었고 강남의 여러 항구(항

주, 소주, 양주, 천주, 광주)들을 개항하여 해상무역을 장려하였다. 대원 제국은 강남에서 소금세와 상세(商稅)를 징수하여 제국의 튼튼한 재정을 확보하였다. 은을 기축통화로 정하고 소금세와 상세를 은, 염인(鹽引), 지폐로 징수하였다. 여기서 염인은 소금 교환권의 판매대금으로 오늘날의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통화제도의 시발점이 된다. 13세기 후반에는 대원 Ulus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제국이었다. 현재의 미국과 다름 없다. 해상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운하를 건설하였다. 그 당시의 해상 무역의 통로

- 대도(大都) → 통주(通州) → 직고(直沽; 天津) → 항주(杭州) → 천주(泉州)
- 광주(廣州) → 동중국해 → 남중국해 → Malacca 해협 → 인도양
- Persian Gulf → Red Sea → Hulegu Ulus → 지중해 → 에게해
- 다다엘스해협 → 마르마라해 → Bosphorus 해협 → 흑해(Black Sea)
- Azov Sea → 볼가강(Volga)

또는

- 대도(大都) → ... → 지중해 → 서유럽(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의 항로를 거쳐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원나라는 무슬림 상인 집단들의 특허회사라고 할 수 있는 Ortogh의 설립을 보장하여 주었다. Ortogh에 속해있는 상인들은 특혜를 받고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국가와 몽골 왕족들은 Ortogh에 투자하여 많은 이자 수익을 챙겼다.

**[6] 고려와의 관계**

원종은 쿠빌라이와 여몽전쟁을 끝내고 강화 조약을 체결하며 돌아와 무신 정권을 끝내고 왕권을 회복했다. 흥미롭게도 이때 쿠빌라이는 고려를 고구려(고려) 그 자체(후신)로 생각하여, "당태종도 정복하지 못한 고(구)려의 후손이 제발로 항복했다." 하며 매우 좋아했다. 당시만 해도 아리크 부카와 대권 경쟁 중이었고, 정통성 측면에서 아리크부카 쪽이 좀 더 우위에 있던 상황에서 몽골제국에게 무려 40년이나 저항하던 고려가 제발로 쿠빌라이에게 와서 항복했으니 정통성 측면에서 상당한 힘을 보태서였다. 대외적으로 쿠빌라이 쪽을 계승자로 봤다는 증거다. 이때 쿠빌라이는 고려 사절단을 매우 환영하며 대접하였고 이들이 고려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호위병력을 상당

수 붙여 보냈다고 한다. 다만 카다안의 침입 당시에는 고려가 속절없는 모습을 보이자 "고구려가 강력하다고 했건만 고려는 어찌 이리도 나약하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자의 고구려 관련 발언에 비해 사람들이 이 말은 잘 모르는데, 카다안의 침입 자체가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쿠빌라이는 딸 제국대장공주를 고려 충렬왕에게 시집보내 고려의 왕비가 되게 했다. 사실 이걸 몽골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였는데 원종이 제안했다고 하지만 원나라에서 황금씨족 직계 공주는 본래 몽골인하고만 혼인하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쿠빌라이는 고려 왕족만은 유일한 예외로 자기 막내딸을 고려 왕비로 만든 것이며 사실상 고려 왕족을 점령국 중 유일하게 부마국이자 제후국으로 인정해준 셈이다. 제국대장공주는 충선왕을 낳았다. 충선왕은 외가인 원나라에서 오래 지내며 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쿠빌라이의 증손녀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했다. 충렬왕 때부터 공민왕 때까지, 고려 왕비(제1비)의 자리를 원나라 여황족이 차지했다. 공민왕의 왕비 노국대장공주를 제외하면, 원나라 공주들은 막강한 친정을 등에 업고 횡포가 대단했다. 이때 쿠빌라이가 고려에 약속한 세조구제(世祖舊制)로, 고려는 몽골에 40년이나 대항하고서도 직할 통치를 안 받은 유일한 나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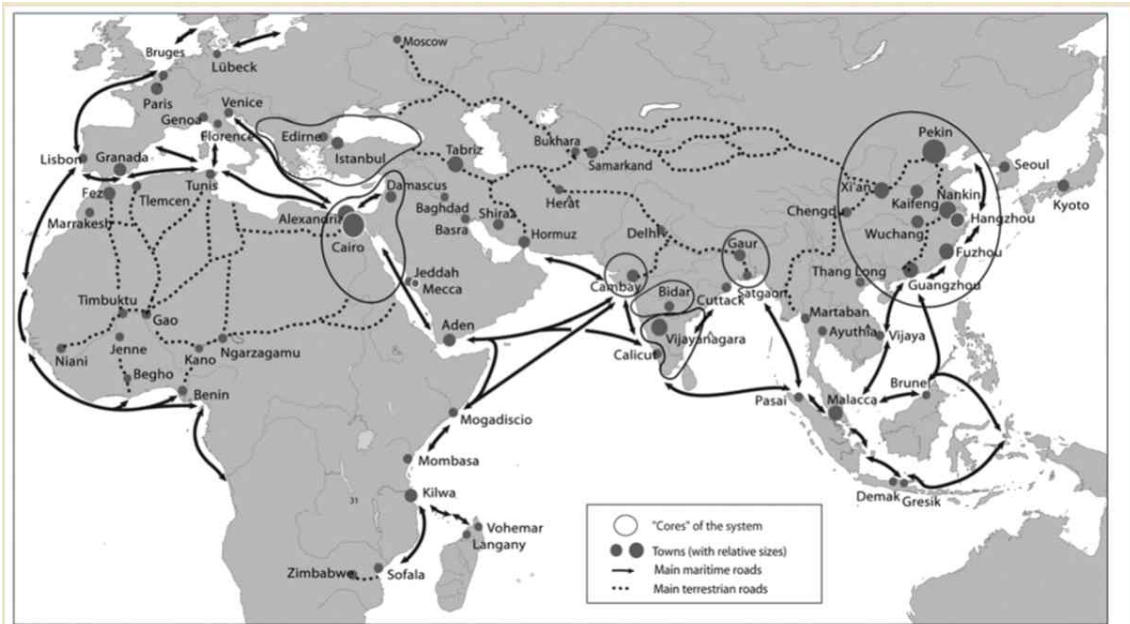
## [참고문헌]

- <1> Peter Frankopan, The Silk Roads : A New History of the World, Bloomsbury Publishing (2015). ISBN : 978-1-4088-3997-3
- <2> Peter Frankopan, The New Silk Roads :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World, Bloomsbury Publishing (2018).
- <3> Robert B. Marks, The Origins of the Modern World (4th edition), Rowman & Littlefield (2020).
- <4> Nicholas Morton, The Mongol Storm, Basic Books, New York (2022).
- <5> Serhii Plokhy, The gates of Europe : A History of Ukraine (Revised Edition), Basic Books, New York (2017).
- <6> Irene Vallejo, Papyrus : The Invention of Books in the Ancient World, translated from Spain by Charlotte Whittle, Alfred A. Knopf, New York (2022).
- <7> Jack Weatherford, Genghis Kah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roadway Books, New York (2004).
- <8> Jack Weatherford, The History of Money, Random House, Inc. New York (1997)
- <9> 가토 요코 (윤현영, 이승철 옮김),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청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서해문집 (2018).
- <10> 杉山 正明 (스기야마 마사아키), 몽골 제국의 흥망 : 상권 : 군사 확대의 시대 하권 : 세계 경영의 시대 講談社(강담사) 現代新書 (1996)
- <11> 몽골 세계 제국 (참고문헌 <8>의 번역서, 역자 : 임대희, 김장구, 양영우), 도서출판 : 신서원 (1999).
- <12> [https://ko.wikipedia.org/wiki/쿠빌라이\\_칸](https://ko.wikipedia.org/wiki/쿠빌라이_칸)
- <13> <https://namu.wiki/w/쿠빌라이%20칸>

양재현 고등연구소

email : [jhyang8357@gmail.com](mailto:jhyang8357@gmail.com)





Map 2.2. The Fifteenth-Century Eurasian and African Trading Worlds

Source: Philippe Beaujard, "The Indian Ocean in Eurasian and African World Systems before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of World History* 16, no. 4 (December 2005): 429, map 5.

